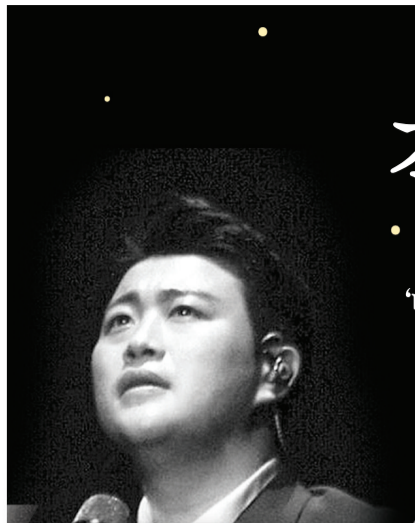


김호중 공연 어찌나

'뽕소니' 논란 속 압박한 공연 3개...소속사 강행 의지 대중 시선 싸늘... KBS '슈퍼 클래식' 대체 출연자 요구



김호중



뽕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사진)의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호중이 출연하기로 예정된 공연의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가요계와 공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소속사는 공연에 출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공연 기획사 측은 여론을 지켜보며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김씨의 출연을 둘러싸고 팬과 대중의 반응이 선명히 엇갈리고 있어 공연을 강행해도, 취소해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정상급 연주자 협연 어찌 되나... "혐의 따라 진행 여부 결정"

현재 김호중이 출연을 앞둔 공연은 3개다. 김씨는 오는 18~19일 경상남도 창원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과 6월 1~2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를 개최한다.

이 투어는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는 공연으로, 김씨는 사고 직후인 지난 11~12일 경기도 고양에서 열린 투어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다.

김씨는 오는 23~24일에는 KBS 주최로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 무대에 선다.

이 공연은 빈필하모니, 베를린필하모니 등 세계 최정상 악단의 현역 단원들이 내한하는 공연으로 관심을 모았다. 김씨는 메인 게스트로 출연해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폴리나와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김씨 소속사는 정해진 입장을 모두 소화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호중은 예정된 공연에 그대로 출연한다"고 말했다.

앞서 소속사 측은 사고 소식이 알려진 지난 14일에도 팬카페 '트바로티'에 "예정된 공연을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공연 기획사는 김씨를 둘러싼 여론을 살피며 공연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공연 관계자는 "김씨의 혐의를 참작해 행사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연 일정이 압박해 대체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공연 전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23일 열리는 공연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 (이하 '슈퍼 클래식')를 주최하는 KBS가 뽕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수 김호중을 대신할 출연자를 섭외하라고 주관사에 요구했다.

KBS는 "슈퍼 클래식" 공연을 앞두고 일어난 최근의 사고와 관련해 공연 주관사인 두미르에 지난 14일 당초 출연이 예정됐던 협연자 김호중을 대체할 출연자를 섭외해 공연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 "별일 아냐" 김씨는 팬-싸늘한 여론 엇갈려 김씨의 출연을 바라보는 팬과 대중의 입장은 극명히 엇갈린다.

팬들은 김씨를 두둔하며 공연 출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극성팬은 뽕소니 혐의에 관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왜곡된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도 팬카페에는 "우리는 호중이 믿는다", "우리 별님(김호중 별명) 힘냅시다" 등 김씨를 응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여론은 김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에도 자숙 없이 출연을 강행한다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일부 클래식 팬들은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공연을 주최하는 KBS를 상대로 김씨의 출연을 재고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그의 매니저가 사고 3시간여 뒤인 10일 오전 2시에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고,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 여부와 '운전자 바뀌지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주의 섬뜩한 민낯을 보다

넷플릭스 '더 에이트 쇼' 오늘 공개...8명의 인물 돈 버는 게임

그다지 잘생기지도, 똑똑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보통의 청년' 진수(류준열 분)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루 일당은 7만8000원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화대교서 몸을 던지려는 데, 휴대전화로 은행 입금 알림이 울린다.

금액은 100만원, 입금자명에는 이름 대신 짧은 메시지가 적혀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포기한", "당신의 시간을", "사고 싶습니까", "관심이 있으면", "(리무진에) 탑승해주세요"

17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새 시리즈 '더 에이트 쇼'는 8명의 인물이 8개 층으로 구분된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시간이 쌓이면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을 하는 이야기다.

삶의 끝자락에서 서 있는 인물들이 정체 모를 주최자의 초대를 받고 거액을 받을 수 있는 게임에 참가하게 되는 설정 자체는 '오징어 게임'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주인공 배진수는 8개 숫자 중 무난해 보이는 숫자 3을 골랐다가 3층을 배정받는다. 쇼가 시작되고 나서 잘 버티지만 하면 1분마다 3만원이 쌓인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180만원, 일당으로 따지면 4320만원이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쾌재를 부르던 배진수는 이내 미소가 굳는다.

다른 층에 거주하는 참가자들을 만나는데, 층마다 시급과 방의 크기가 다르다. 빛도 잘 안 들어오

는 비좁은 3층 방과 달리 8층 방은 한참 크고, 분당 무려 34만원이 지급된다.

'더 에이트 쇼'는 배경음에 따라 권력이 나눠지고, 시간의 가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간단명료한 규칙을 내세워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비춘다.

8개 숫자 중 임의로 고른 숫자에 따라 방이 배정된 참가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전혀 다른 생활을 한다. 8층(천우희)은 실컷 슬립을 입고 극세사 이불을 덮고 자지만, 3층은 종이상자를 깔고 신문지를 덮고 잔다.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참가자들은 점점 자본주의의 냉혹한 법칙을 깨우친다.

가진 자들은 갖지 못한 자들을 착취하기 시작하고, 갖지 못한 자들은 자기들끼리 다투느라 불공정하게 설계된 게임의 본질을 간파하게 된다.

일체적인 설정의 캐릭터들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되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곳곳에 숨어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더 에이트 쇼'는 영화 '관상', '더 킹', '비상선언' 등을 만든 한재림 감독의 첫 시리즈 연출작이다. 8부작으로 제작됐으며, 언론에는 1~5회가 먼저 공개됐다. 극초반에는 연극적이고 유쾌한 연출이 웃음을 자아내지만, 인물들이 점차 각자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극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워진다. 폭력적인 장면도 적지 않아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KBS 경제뉴스 신설 '성공 투자법' 전수

KBS가 평일 경제 뉴스를 신설하고 기존 뉴스 앵커들을 새 얼굴로 교체한다.

KBS는 16일 "오는 20일부터 매주 월~목요일 오후 6시 2TV를 통해 '경제콘서트'를 방송할 것"이라며 "기업과 개인이 '윈윈'하는 내일의 성공 투자법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콘서트'는 기업들의 주요 동향을 분석하는 '경제 핫플', 전문가를 초대해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는 '머니 시그널', 정책 결정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초대해 전망을 듣는 '이슈 콘서트' 등의 코너로 이뤄진다.

진행은 '통합뉴스룸 ET'를 3년 동안 진행했던

이윤희 기자가 맡는다. 또 1TV에서 방송 중인 종합뉴스 앵커들을 교체하기로 했다.

'KBS 뉴스12'는 류호성 기자와 장수연 앵커가 새롭게 진행을 맡는다. 류 기사는 2004년 공채 30기로 KBS에 입사해 정치부, 경제부, 사건팀 등을 거쳤고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참사 등의 현장에서 생방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아울러 라디오 진행자도 일부 변경한다. 평일 오전 7시 2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 '전격시사'는 진행자가 전종철 기자에서 시사평론가 고성국씨로 변경된다. 전 기사는 평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하는 '뉴스레터K'를 진행하게 됐다. /연합뉴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대연건설
광주 동구 제봉로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인마이자, 식품화장품, 마사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물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박당화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글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유품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 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영,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파크랜드 광주 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2호
당신의 오늘을 위한 파크랜드.
가을, 겨울신상품 50%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251, 010-8660-1557

도명 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멋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배러미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동어구이, 주물럭, 찜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을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